

제19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 개최결과

1. 일시·장소 : 2018. 3.28(수)~29(목), 일본 호텔오쿠라도쿄 B2F Ascot Hall
2. 주최기관 : 한일경제협회, 한국무역협회, 일한경제협회, 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
3. 참 가 자 : 총 95명, 명단 별첨
 - 한국측 : 안종원 차어맨(한국무역협회 비상근 부회장) 등 55명
 - 일본측 : 아소 유타카 차어맨(아소시멘트 회장) 등 40명
4. 회의주제 : 제50회 한일경제인화회의를 다 함께 축하하고,
경제·인재·문화교류를 통해 다음 50년을 창조해 가자!
 - 세션1 : 한일경제협력 미시적&거시적 관점
 - 세션2 : 다음 50년·차세대·문화·관광교류
5. 회의 개최결과

- 한일경제인화회의 50주년을 다 함께 축하하고, 다음 50년을 창조해 나가기 위한 한일관계의 새로운 비전제시
 - 제50회 한일경제인화회의 논의사항의 구체적 실현방안 논의(문제해결형 전문가 회의로서 기능)
 -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속에서 한일관계의 새로운 비전제시 (다음 50년·차세대·문화·관광교류 협력을 통한 한일협력 강화)
- 주요 제언내용
 - ① 한일 제3국 경제연계 미션 파견
 - 인도네시아(자원), 미얀마(인프라), 몽골(에너지)에 이어 베트남(제조업) 비즈니스 연계 조사단 파견
 - ② 한국청년인재 일본계 기업 인턴실습 지속 실시
 -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아 '15년부터 일본계 기업 인턴파견 실시 (7명 인턴회사, 16명 일본계 기업에 취업)
 - 2천명의 이공대 유학생 실태 F/U, 유학생 비자취득 애로사항 해결, 해외인재 채용희망 일본기업 수요조사 등 제언
 - ③ 도레이첨단소재의 성공사례를 통한 한일경제협력·교류 확대 제언
 - 한일협업을 통해 변화하는 시장 공동대응·진출
 - 협업의 의의 : 금융 조달, 리스크 분담, 마케팅 강화 등 상호보완, 경쟁력 강화
 - ④ 도쿄올림픽을 플랫폼으로 한 한일문화교류 확대 제언
 - 한일축제한마당(일한교류축제), 도쿄올림픽관광 홍보(서울-도쿄 교류협력)
 - ⑤ 한일관계의 구조적 진단 및 상생의 21세기 한일관계를 제언
 - 에너지 협력(슈퍼그리드), 환경분야 협력(미세먼지), 고령화·4차산업, 상호보완적 한일 단일시장화, 안보협력, 긍정적 성공스토리 발굴·전파

6. 세부 내용

① 한일 제3국 경제연계 미션 파견활동 통해 다음 50년을 창조

- 한일 제3국 경제연계 미션 : 인도네시아(자원), 미얀마(인프라), 몽골(에너지)에 이어 베트남(제조업) 비즈니스 연계 조사단 파견
 -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과 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에서는 아시아권을 중심으로 한일기업에 의한 공동진출(인프라수출/에너지) 및 공유하는 사회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연구하기 위해 양국 경제인이 참가하는 미션을 파견
 - 제1회 인도네시아(2013년), 제2·3회 미얀마(2014, 2015년), 제4회 몽골(2017년)에서 현지시찰미션을 수행. 2018년에는 제5회 미션을 베트남에 파견

② 한국청년인재 일본계 기업 인턴실습 지속 실시

-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아 '15년부터 일본계 기업 인턴파견 실시 (7명 인턴회사, 16명 일본계 기업에 취업)
 - 목적 : 한국대학생들을 재한 일본계기업에 파견하여, 업무를 통해 일본기업의 비즈니스 노하우를 습득
 - 성과 : 7명이 인턴을 했던 회사에, 16명이 일본계기업에 취업 (일본 본사 및 한국 거점·투자처), 한국정부가 주력하고 있는 청년실업문제 해소에도 일조
 - 2018년 계획 : 재한 한국대학생 50명, 2018년 7월~8월 중 한 달간 인턴실습

③ 대한투자 일본기업 중 가장 성공한 기업인 도레이첨단소재의 성공사례를 통한 한일경제협력·교류 확대 제언

- 한일협업을 통해 변화하는 시장에 공동대응·진출
 - 협업의 의의 : 자금조달 강화, 리스크분담, 마케팅강화 등 상호보완·경쟁력 강화

④ 도쿄올림픽을 플랫폼으로 한 한일문화교류 확대 제언

- 한일축제한마당(일한교류축제), 도쿄올림픽관광 홍보(서울-도쿄 교류협력)
- 문화에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웃음짓게 할 수 있는 힘이 존재하며, 지속적인 개최는 반드시 미래로 연결

5. 한일관계의 구조적 진단 및 상생의 21세기 한일관계를 제안

- 에너지 협력(슈퍼그리드), 환경분야 협력(미세먼지), 고령화·4차산업, 상호보완적 한일 단일시장화, 안보협력, 긍정적 성공스토리 발굴·전파
 - 2002년 한일월드컵 공동개최 성공재현
 - * 한일·동북아 프로축구, 야구 공동리그
 - 에너지 관련 대형 협력사업(Mega Project) 구상
 - * 녹색성장+에너지 안보+에너지사용 효율화, 아시아 전력망 구축
 - 환경분야 지역협력 메카니즘 구축
 - * 미세먼지, 해양오염, 황사 공동대처 지역기구 설립
 - 양국 모두 고령화와 4차 산업 전환 대비 필요
 - * 경제는 Positive-Sum Game 가능한 분야
 - 상호보완적 한일경제의 단일시장화로 극복
 - * 경제적 신뢰 창출 효과 기대
 - 한일 안보협력 추진
 - * 동아시아 안보 차원에서 신뢰구축을 위한 공동노력
 - 부정적 인식 타파를 위한 노력 필요
 - * 교류와 협력의 성공사례들을 발굴, 양국 사회에 알리고 교육과정에도 포함
- 상생과 협력의 한일관계를 위한 제안
 - 동아시아지역질서 구축협력 : 和中協日(한국), 탈아입구적 자세 탈피(일본)
 - 역사문제 해결방안(공동역사교재 편찬 등), 한일FTA체결 등

7. 개최인사 요지

□ 아소 유타카 (麻生 泰) 일본측 체어맨

-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폐막을 축하하며, 이를 계기로 한국과 북한의 화해 무드가 조성되고 주변국으로도 확산되어 가는 조짐이 보이고 있음
- 또한 2년 연속 연기되었던 한중일 정상회담도 5월에 개최될 예정으로 언론에 보도되어 평화 무드가 조성되고 있는데, 이러한 열기가 2020년에 개최예정인 동경올림픽으로 이어지기를 희망함
- 최근 경제면에서 가일층의 **보호주의의 움직임, 시장의 변동성이 현저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을 비롯한 11개국의 TPP서명식이 거행되었으며, G20 공동성명에서는 불공정한 무역관행을 포함한 **모든 보호무역 주의와의 싸움**을 명기
- 한일 양국은 상호 공조하여 FTA를 통한 **하나의 경제권을 추진**해야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양국이 긴밀한 협력을 계속해 나가야 함

■ 안중원 (安宗原) 한국측 체어맨

- 최근 미국 트럼프 정권의 자국 이익 우선주의가 국가간 무역분쟁의 불씨를 지핀에 따라 글로벌 자유무역질서의 커다란 도전을 맞이함
-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의 상황이 급반전되어 가고 있고 경색되었던 한일 관계도 좋아질 것으로 기대
- 이상화 선수와 고다이라 나오키 선수의 모습과 같이 **한일 양국 경제인이 공동 번영을 모색, 탄탄한 한일 관계를 구축**해 나아가기를 기대
- 올해는 21세기의 새로운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발표한지 20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해로 한일 경제인들도 온고지신의 정신으로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어 가야할 것임

□ 다카다 노부아키(高田 伸朗) 코디네이터

-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을 축하하고 한일 두 나라 정상은 미래지향적 양국 관계 구축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으며 이는 대단히 큰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함
- 선배들의 좋은 관계를 우리 현역이 계속 이어 받아 나아가야 할 것임
- 양국 경제인간의 상호 이해와 신뢰 관계가 가일층 심화되기를 기대하며, 양국 공통의 과제해결을 위한 이해와 협력이 중요

■ 이수철 (李洙喆) 코디네이터

- 본 회의가 19회째를 맞이하고 있으나, 기대하는 성과를 얻는데는 다소 미흡하다는 생각임
- 앞으로도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는 내용의 회의가 되기를 기대

□ 고레나가 가즈오(是永 和夫) 일한경제협회 전무이사

-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하고 고다이카, 이상화 선수가 보여준 우정과 위로의 감명깊은 장면과 같이 우리 경제인들도 한일 양국의 우호증대의 정신을 살려 나아가야 할 것임
- 오늘의 본회의 및 제50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는 새로운 합의사항을 추구하기 보다는 작년에 개최된 제49회 한일경제인회의의 공동성명의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가를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함
- **하나의 경제권을 계속 호소해** 나아가 한자는데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다만 방법에 있어 세계 경제의 변화에 맞춰서 유연한 사고로 대응하면서 이해관계에 맞춰 현실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임

■ 서석송 (徐錫崇) 한일경제협회 부회장

- 한일 양국은 서로 이사 갈 수 없는 관계로 **선의경쟁과 최대한 협력하면서 공존공영해** 나가야 할 것임
- 우리는 이번 회의와 5월에 개최되는 제50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많은 분들의 조언과 협력을 얻어 내년에 20회를 맞이하는 한일산업무역회의와 제51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는 **눈에 보이고, 마음으로 느끼고, 손에 잡히는 결과물**을 얻고자 하며, 사무국에서 책임을 가지고 앞으로 50년을 향해 최선을 다해 나아갈 것을 약속함

8. 주요 발표 및 질의응답 내용

① 제1세션 : 한일경제협력 미시적&거시적 관점

□ 후지요시 유우코우 SJC이사장

「서울재팬클럽 2017년도 활동보고·2018년도 과제」

1. 서울재팬클럽의 2017년도 활동보고
 - 한국정부에의 건의
 - 문화교류·사회공헌·일본인학교 운영·법인활동 관련 사업
 - 인턴실습 : 한국 대학생들의 일본계 기업 인턴실습(2018년도 50명 예정)
2015~2017 3년간 7명이 인턴실습을 실시한 기업에 채용
 - 제3국 공동진출 : 몽골에서의 한일연계 프로젝트 시찰 및 비즈니스 연계 기회를 모색
2. 2018년도 과제 : 위기대응(한반도 긴장고조), 소통강화(산업부), 한일교류사업 등

■ 전해상 도레이첨단소재(주) 대표이사사장

「도레이첨단소재의 성공요인을 통해 바라본 한일경제협력·교류확대」

1. 도레이의 한국투자
 - 한국나일론에 나일론 제조기술 공여(1963)→제일합섬 설립(1972)
→도레이세한 설립(1999)→한국진출 55주년(2018)
 - 한국에서의 사업방침

장기적 관점에서 한국에 기여	한일 모회사 튜브경영간 우호·신뢰관계 유지
한국인 경영자 지명하여 위임	경영정보 적기안내로 노사신뢰 구축

2. 한일기업의 강점과 협업

일본기업의 강점 : 기술력, 자본력, 네트워크	한국기업의 강점 : EPC경쟁력, 추진력
---------------------------	------------------------

- **협업의 의의 : 자금조달력 강화, 리스크분담, 마케팅강화 등**

3. 한국 도레이의 미래

- 아시아 신흥국의 사업 거점화
- 탄소섬유 세계1위기업인 도레이의 산업용도 아시아 제조거점
- 2017년~2020년 4년간 총 1조원 투자 및 2020년 매출 5조 달성 목표

② 1세션 질의응답 내용

- P&G(미국 글로벌기업)의 한국인 신입사원채용 및 아시아지역 인재공급 사례의 407개 SJC 회원기업에서의 활용을 제언
 - 혼자 꾸는 꿈은 꿈으로 끝나지만, 같이 꾸는 꿈은 이루어짐
 - 일본 기업 본사, 인사담당자의 검토를 기대
- 한국학생의 일본 항공회사 인턴십 내용 소개
 - 공항업무·정비·운항조직 등 항공업무 전반에 대해 시찰, 항공분야 이해의 기회 제공
- 일본 본사가 아닌 자회사인 도레이첨단소재가 해외에 손자회사 설립 이유와 현지 기업의 흡수 능력에 대해 질의
 - 도레이첨단소재의 독자적인 복합재료 기술로, 한국 경영자의 리더십에 의해 세계화를 추진(기저귀, 생리대 등 수요 대폭 증가에 대처)
- 도레이첨단소재의 해외진출시, 로컬파트너·입지결정시 중시 요소 질의
 - 현지인의 기술능력 습득이 중요, 한국인의 현지화 능력(언어습득)이 장점
- 한국기업의 일본진출 사례 소개(CJ)
 - 일본진출 목적을 명확히 설정 필요(일본 경쟁력+한국 잠재력=상생 모멘텀)
 - 일본진출 시, 원원포인트(상호보완, 비즈니스모델)를 찾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
- 차기회의에 스미토모화학 성공사례 청취 희망, 한국기업 일본진출 실패반복
 - 현지기업의 정보를 토대로 참된 경영전략 수립 후, 끈기있게 일본진출 필요
- 한일고교생교류캠프의 평창올림픽을 테마로 한 활동, 캠프 OB/OG의 평창 자원 봉사활동, 한국대학생의 COOL JAPAN 체험, 교환유학생 등 소개
 - 올림픽을 플랫폼으로 한 청소년 교류의 성과 기대, 문화올림픽의 교류성과

③ 제2세션 : 다음 50년·차세대·문화·관광교류

□ 다나카 에이지 (궤하쿠호도 도쿄2020추진실 추진2부 부장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을 플랫폼으로 한 한일문화교류」

1. 한일축제한마당 설명
 - 수 많은 한일 양국 국민이 하나되어 만들어가는 최대규모의 한일 교류행사
 - 2018년도 개최 10주년
 - 한일 양국간 정치·경제적 어려운 상황에도 국민들을 웃음짓게 할 힘은 문화
 - 지속적인 개최는 반드시 미래로 이어짐
2. 한일 양국 올림픽의 성공개최 분위기 조성
 - 2015년 서울과 도쿄가 서로의 관광자원을 홍보(지하철역사 포스터 등)
 - 도쿄올림픽 홍보방안 설명

■ 신각수 법무법인 세종 고문·前 주일한국대사 「함께 꾸는 21세기 한일몽 -상생과 협력의 선린관계-」

1. 동아시아 전략환경의 변화와 한일관계
 - 한일관계는 위기를 겪으면서도 정치·경제·문화·사회면에서 착실히 관계를 확대·심화해 왔으나 최근에는 여러 갈등으로 인해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임
 - 건전하고 안정적 한일관계는 동아시아 전략에 있어 매우 중요하며 한일 양국 정부와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아야 가능함
2. 한일관계의 구조적 진단
 - 한일관계는 역사 및 영토문제·한국의 중국경사론 등으로 인하여 서로 무시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상대방이 자국 국익에 얼마나 중요한지 대해 냉정히 따져봐야 하며, 한일 양국은 경제·외교·안보면에서 상호 중요한 존재임을 생각해야 함
 - 한일관계 개선에는 양국 정치권과 언론의 역할이 중요
3. 상생과 협력의 한일관계를 위한 제언
 - 역사문제 해결방안 : 위안부합의 조기이행, 공동역사교재 편찬 등
 - 동아시아지역질서 구축협력 : 和中協日(한국), 탈아입구적 자세 탈피(일본)
 - 상설민간합의체(1.5.트랙) 설치 검토, 한일FTA체결 등
 - 이웃국가인 이사가 불가능

㉔ 2세션 질의응답 내용

- ‘함께 꾸는 21세기 한일몽’의 한일파트너십 확산과 실천이 중요
 - 정치·외교 분야 기관 등에 발표, 인식 확산 기대
 - 한일관계 악화가 한국경제에 미친 영향(투자·관광객·취업의 문 감소), 데이터 제시가 필요
- 한일간 잠재적 협력분야로서, 에너지 관련 협력사업 구상·포지티브 스토리확산, 젊은인재 교류를 기대
 - 에너지 분야의 제3국에서 일본 기술과 한국 기동성 연계, 미래를 내다보고 포지티브 스토리를 확산, 일본인의 소통 강화와 영어구사력 증대를 위한 한국 청년인재 활용 기대
 - 러시아 가스 활용 등 한일협력으로 중동의 가격차별 시정, 기후변화 협력
 - 일본학생의 한국의 영어사용 학교와의 교류, 아시아 캠퍼스(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의 학점·학위 인정, 상대국 가서 공부할 수 있는 제도 활용
 - 한일중의 목소리가 높아져, 아시아의 표준이 세계의 표준이 되도록 협력
- ‘21세기 새로운 한일파트너십 공동선언’ 20주년, 2천명의 이공학계 학부 초청 유학생의 F/U 제언
 - 일본 비즈니스계의 귀중한 인재로 활용 기대
 - 일한경제협회가 일본유학생 활용차원에서 F/U
- 한일축제한마당·일한교류오마츠리의 앙케이트 조사 사례 및 젊은 세대의 기대 사항에 대해 질의
 - 올해부터 관람자에 심도있는 앙케이트 실시 계획

㉕ 전체토론 내용

- 일본에서 한국을 아는 전문가보다 일본을 아는 한국 연구자가 적음
 - 일본을 아는 기회 축소(언론사 철수, 한일의원연맹 교류), 상호 이해증진 및 전파가 필요
 - 한국 사회가 일본에 대해 안다는 생각과 전 세계에 관심이 분산
 - 세토포럼의 도쿄 세미나(게이오대학, 5/19)에서 한일관계 논의
 - 시즈오카현립대 졸업생의 페이스북 사례처럼, 긍정적 얘기를 체험·대화할 수 있는 SNS 활용을 기대
- 한일협력의 긍정적 스토리 및 사례 소개
 - 제3국 협력(리먼쇼크 당시 5건→현재 90여건의 프로젝트)
 - 인도네시아 LNG 프로젝트(투자리스크 감소, 수송협력, 인재양성 플랫폼)
 - 한일은 함께 비즈니스를 만들어 가는 추세(몽골, 베트남 등)
- 한일 양국 기업인의 중단없는 교류, 젊은 세대의 상대국 인식 향상 필요
 - 젊은 세대들의 회의참석과 양국 간 인식을 높여주는 기회 제공
 - 공동성명의 실행이 필요
- 제20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에서는 달라진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
 - 경제인회의에 앞서 거시적 논의를 보완해 미시적·구체적논의, 실행방안을 도출
 - 한국 문화(즉시투입가능 인재)와 일본문화(미래 잠재력, 조직원 화합)를 고려한 한국 청년인재육성 및 일본기업의 활용
- 한일 관계 세미나의 멤버 고정, 매번 되풀이 토론의 틀·외연 확장을 제언
 - 영어로 토론, 한일포럼의 외연 확장 중요
- 제3국 협력, 인터넷, 유학생 활용 등 좋은 사례의 대국민 홍보가 중요
 - 50회 경제인회의 공동성명, G20(2019년 일본 개최)회의 등에서 가치관 공유
 - 다자간 채널에서의 보호무역주의 등 한일협력 기대

-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인적교류의 중요성, 한국인 채용 일본기업 수요 파악, 비자문제 해결을 요망

- 한일·일한경제협회가 협력하여, 한국인 채용을 희망하는 일본 기업처를 찾아 주기를 희망
- 요리학원 2년 수료 후, 일식이 아닌 양식 자격증 취득시 비자취득 불가하며, 비자 취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학생의 애로사항 해결을 요망

9. 총괄 마무리

- 인적교류·상호이해·대화의 기회 축소 경향, 기탄없는 논의의 장을 기대
 - 내년 20회 회의, 논의 시간 확대·애로사항 논의·문제해결
 - 20번째 회의는 한국에서 책임지고 가시적 성과 내도록 준비
- 일본 비즈니스맨은 글로벌 소통능력이 부족, 한국의 어학력 및 에너지 활용은 일본의 글로벌화에 좋은 기회
 - 한일공동으로 해외 에너지 사업전개 등 비즈니스 기회를 활용
- 실천적 구체적 액션플랜으로 좋은 성과 기대, 도쿄올림픽 성공개최 협력, 송무 백열(소나무가 번성하면 잣나무가 기뻐한다)의 자세로 한일몽 실현 기대
 - 앞으로 50년, We dream together
- 이번 회의의 논의내용은 제50회 한일경제인회의(5.15~16, 도쿄)에 상정

[참 부]

1. 제19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 회의일정 1부.
2. 제19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 한일 양국 참가위원 명단 각 1부.
3. 제19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 언론 보도자료 1부.
4. 제19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 전경(사진자료) 1부. 끝.

첨부 1 제19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 회의일정

일 자	시 간	내 용
3. 28 (수)	08:40~10:45	김포공항 → 하네다공항 (OZ 1085)
	09:00~11:05	김포공항 → 하네다공항 (KE 2707)
	12:00~13:30	하네다공항 → Hotel Okura Tokyo (BUS) ※투숙호텔 : Akasaka Excel Hotel Tokyu & Hotel Okura Tokyo
	13:40~14:00	Hotel Okura Tokyo → Akasaka Excel Hotel Tokyu (BUS)
	16:40~17:00	Akasaka Excel Hotel → Hotel Okura Tokyo (BUS)
	18:00~20:00	리셉션 ※장소 : Hotel Okura Tokyo 별관 12F Kensington Terrace
	20:20~20:40	Hotel Okura Tokyo → Akasaka Excel Hotel Tokyu (BUS)
3. 29 (목)	09:00~09:20	Akasaka Excel Hotel Tokyu → Hotel Okura Tokyo (BUS)
	09:20~09:30	등록/접수 ※장소 : Hotel Okura Tokyo 별관 B2F Ascot Hall
	09:30~09:40 (10)	▶아소 유타카(麻生 泰) 체어맨 인사 ▶안종원(安宗原) 체어맨 인사
	09:40~10:00 (20)	▶다카다 노부아키(高田 伸朗) 코디네이터 인사 ▶이수철(李洙喆) 코디네이터 인사 ▶고레나가 가즈오(是永 和夫) 일한경제협회 전무이사 인사 ▶서석송(徐錫崇) 한일경제협회 부회장 인사
	10:00~10:50 (50)	세션(Ⅰ) 테마 : 한일경제협력 미시적&거시적 관점
		▶후지요시 유우코우(藤吉 優行) SJC이사장 겸 한국미쓰비시상사(주) 사장 「서울재팬클럽 2017년도 활동보고·2018년 과제」 ▶전해상(全海尙) Toray첨단소재(주) 대표이사사장 「도레이첨단소재의 성공요인을 통해서 바라본 한일경제협력·교류확대」
	10:50~11:30 (40)	▶자유 토론
	11:30~13:00 (90)	오찬 (일식도시락)
	13:00~13:40 (40)	세션(Ⅱ) 테마 : 다음 50년·차세대·관광교류
		▶다나카 에이지(田中 英士) (주)하쿠호도 TOKYO2020 추진실 추진2부 부장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을 플랫폼으로 하는 한일문화교류」 ▶신각수 법무법인세종 고문·세토포럼 이사장·前 주일한국대사 「함께 꾸는 21세기 한일몽 ~ 상생과 협력의 선린관계 ~」
	13:40~14:20 (40)	▶자유 토론
	14:20~14:40 (20)	Coffee Break
	14:40~15:10 (30)	▶전체토론 & 정리
	15:10~15:30 (20)	▶양측 코디네이터, 체어맨 총괄, 사무국 인사
	16:30~17:30	Hotel Okura Tokyo → 하네다공항 (BUS)
	19:55~22:25	하네다공항 → 김포공항 (KE 2710)
	20:05~22:35	하네다공항 → 김포공항 (OZ 1035)

첨부 2 제19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 한일 양국 참가위원 명단

① 한국측 참가자 : 55명

姓名 가나다 順

No	所 屬	職 責	姓 名	備 考
1	(社)韓國貿易協會	前副會長	安 宗 原 AHN Chong Won	Chairman
2	(株)GH Holdings	會 長	李 洙 喆 LEE Soo Chul	Coordinator
3	(社)韓日經濟協會	副 會 長	徐 錫 崇 SEO Seok Soong	主催機關代表
4	Toray尖端素材(株)	社 長	全 海 尙 JEON Hae Sang	1Session 發表
5	法務法人世宗 SETO Forum	顧問 理事 長	申 珪 秀 SHIN Kak Soo	2Session 發表
6	(株)韓國高分子	部 長	姜 勇 元 KANG Yong Won	企業·團體 等
7	眞露(株)	代 表	權 弘 鳳 KWON Hong Bong	
8	(株)Hikari情報	會 長	奇 秉 泰 KEE Byung Tae	
9	韓國銀行 東京事務所	所 長	金 南 榮 KIM Nam Young	
10	POSCO大宇Japan(株)	部 長	金 大 源 KIM Dae Won	
11	金田事務所	會 長	金 德 吉 KIM Duk Gil	
12	(株)大宇建設	支 社 長	金 相 羽 KIM Sang Woo	
13	Mizuho 証券	assistant manager	金 秀 昶 KIM Soo Chang	
14	Superlight Case LTD.	代 表	金 玉 卿 KIM Ok Kyung	
15	大韓製糖(株) 東京支社	支 社 長	金 容 煥 KIM Yong Hwan	
16	(株)Sun Travel	代表理事	金 仁 源 KIM In Won	
17	(株)大韓航空	日本地域 本 部 長	金 正 洙 KIM Jeong Soo	
18	Korea Japan News	編 輯 長	金 昌 南 KIM Chang Nam	
19	Maxtel Co., Ltd	社 長	金 亨 基 KIM Hyung Ki	
20	Geo Nation(株)	代表理事	金 孝 眞 KIM Hyo Jin	
21	(社)韓國貿易協會 東京支部	支 部 長	朴 貴 懸 PARK Gui Hyun	
22	共生國際特許情報(株)	代 表	朴 南 淑 PARK Nam Sook	

No	所 屬	職 責	姓 名	備 考
23	(株)CU	社 長	朴 省 顯 PARK Seong Hyun	企業·團體 等
24	Kolon Industries	所 長	朴 連 鎬 PARK Yeon Ho	
25	太榮商船(株) 日本法人	代 表	朴 永 守 PARK Young Soo	
26	KBI Japan Co.,Ltd	顧 問	朴 有 祥 PARK Yoo Sang	
27	Technopia Co., Ltd	代表理事	朴 裁 世 PARK Je Sae	
28	KBI Japan Co.,Ltd	代表理事	白 承 浩 BAEK Seung Ho	
29	Geo Nation(株)	常 務	徐 大 源 SEO Dae Won	
30	韓國貿易保險公社	支 社 長	宋 在 連 SONG Jae Yeon	
31	韓國觀光公社 東京支社		松 村 亞久里 MATSUMURA Aguri	
32	Paradise International	代表理事	新 井 秀 之 ARAI Hideyuki	
33	CJ Japan Corp.	代表理事	安 相 萬 AHN Sang Man	
34	Yohan Co., Ltd	部 長	梁 南 旭 YANG Nam Wook	
35	Asiana航空(株)	日本地域 本 部 長	吳 敬 洙 OH Kyong Soo	
36	慶尙北道 東京事務所	所 長	吳 泰 憲 OH Tae Heon	
37	中小企業振興公團日本事務所	所 長	禹 澈 WOO Chul	
38	SK Hynix Japan(株)	代表理事	尹 瑛 駿 YOON Young Joon	
39	東部Japan Co., Ltd	社 長	李 東 漣 LEE Dong Joon	
40	SKC 日本支店	支 店 長	李 善 宰 YI Seon Jae	
41	巨山Japan(株)	代表理事	李 淳 培 LEE Soon Bae	
42	金融監督院 東京事務所	所 長	林 尙 奎 LIM Sang Gyu	
43	SBJ銀行	代表理事 副 社 長	田 弼 煥 JEON Pil Hwan	
44	Hyundai Sungwoo Tokyo	常 務	鄭 東 民 JUNG Dong Min	
45	(社)韓國貿易協會 東京支部	Team長	趙 容 一 CHO Yong Il	
46	KOTRA	日本地域 本 部 長	趙 恩 鎬 JO Eun Ho	
47	(社)韓國貿易協會 東京支部	Team長	洪 尚 秀 HONG Sang Soo	
48	在日韓國科學技術者協會	顧 問	洪 政 國 HONG Jung Kook	

No	所 屬	職 責	姓 名	備 考
49	駐日本國大韓民國大使館	商 務 官	文 東 珉 MOON Dong Min	Observer
50	駐日本國大韓民國大使館	經濟參事官	金 知 熙 KIM Ji Hee	
51	駐日本國大韓民國大使館	書 記 官	鄭 智 薰 JUNG Ji Hoon	
52	駐日本國大韓民國大使館	商務官補	金 相 孝 KIM Sang Hyo	事務局
53	(社)韓日經濟協會	事務局長	趙 德 卯 CHO Duck Myo	
54	(社)韓日經濟協會	部 長	金 正 鎬 KIM Jung Ho	
55	(社)韓日經濟協會	課 長	徐 光 賢 SUH Kwang Hyun	

㉑ 일본측 참가자 : 40명

일본측 기재순서

No	所 屬	職 責	姓 名	備 考
1	(一社)日韓經濟協會 (株)麻生Cement (一社)九州經濟連合會	副 會 長 會 長 會 長	麻 生 泰 Aso Yutaka	Chairman
2	NRI社会情報System(株)	取締役社長	高 田 伸 朗 Takada Nobuaki	Coordinator
3	韓國三菱商事(株) Seoul Japan Club	社 長 理 事 長	藤 吉 優 行 Fujiyoshi Yuko	1Session 發表
4	(株)博報堂 TOKYO2020 推進室	推進二部長	田 中 英 士 Tanaka Eiji	2Session 發表
5	(株)Hotel Okura Tokyo	取 締 役 相 談 役	清 原 當 博 Kiyohara Masahiro	企業團體等
6	(株)三井住友銀行	Seoul 支 店 長	高 橋 克 周 Takahashi Katsunori	
7	静岡県立大学 国際関係学部	教 授	小 針 進 Kohari Susumu	
8	日本放送協會 解説委員室	解説主幹	出 石 直 Ideishi Tadashi	
9	日本放送協會 報道局 国際部	副 部 長	塚 本 壯 一 Tsukamoto Souichi	
10	国立研究開発法人 科学技術振興機構	上 席 Fellow	藤 山 知 彦 Fujiyama Tomohiko	
11	(株)DNA	常勤監査役	小 泉 慎 一 Koizumi Shinichi	
12	日本航空(株) 政策業務部	部長代理	溝 上 直 思 Mizogami Naoshi	
13	日本商工会議所 国際部	担当部長	西 谷 和 雄 Nishitani Kazuo	
14	日本貿易振興機構	主 幹	清 水 顯 司 Shimizu Kenji	
15	住友商事(株) Global業務部	部長代理	伊 崎 正 人 Izaki Masato	
16	三菱商事(株) 業務部	社 員	池 澤 健 太 郎 Ikezawa Kentaro	
17	韓國三井物産(株)	社 長	森 山 朋 之 Moriyama Tomoyuki	
18	韓國三井物産(株) 経営企画本部	本 部 長	齋 藤 雅 文 Saito Masafumi	
19	韓國三井物産(株) 業務管理本部	本 部 長	李 在 鎔 LEE Jae Yong	
20	(株)OKINAWA J-Advise	Adviser	宇 尾 保 Uo Tamotsu	
21	(社)韓日文化・産業交流協會	名誉会長	高 杉 暢 也 Takasugi Nobuya	
22	(公財)中曾根康弘世界平和研究所	主任研究員	原 実 Hara Minoru	
23	外務省 Asia 大洋州局 日韓經濟室	室 長	齋 藤 敦 Saito Atsushi	

No	所 屬	職 責	姓 名	備 考
24	外務省 Asia 大洋州局 日韓經濟室	研 究 員	青山 悠 Aoyama Haruka	
25	經濟産業省 韓国室	室 長	桐部 仁志 Kiribe Hitoshi	
26	經濟産業省 韓国室	課長補佐	井澤 俊和 Izawa Toshikazu	
27	經濟産業省 韓国室	係 員	中岡 廣治 Nakaoka Koji	
28	(一社)日韓經濟協會	專務理事	是永 和夫 Korenaga Kazuo	事務局
29	(一社)日韓經濟協會	常務理事	杉山 茂夫 Sugiyama Shigeo	
30	(一社)日韓經濟協會	常務理事	千吉良 泰三 Chigira Taizo	
31	(一社)日韓經濟協會	總務部長	伊藤 美千代 Ito Michiyo	
32	(一社)日韓經濟協會 青少年交流Center	Center長	金 侑 貞 Kim Yu Jung	
33	(一財)日韓産業技術協力財団	常務理事	木村 慎一郎 Kimura Shinichiro	
34	(一財)日韓産業技術協力財団	部 長	須藤 俊 Sudo Shun	
35	(一財)日韓産業技術協力財団 日韓中小企業情報交流Center	Center長	杉原 景 Sugihara Kei	
36	(一財)日韓産業技術協力財団 日韓中小企業情報交流Center	社 員	小林 ソンヨン Kobayashi Sungyeon	
37	(株)日刊工業Communications	社 員	河原 啓太 Kawahara Keita	
38	上智大学 文学部 新聞学科 2年	大 學 生	佐々木 仁 渚 Sasaki Niina	韓日學生未來會議
39	早稲田大学 商学部 3年	大 學 生	金子 卓生 Kaneko Takao	
40	慶應志木高等學校 3年	高等學生	鈴木 薫 Suzuki Kaoru	

첨부 3 제19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 언론 보도자료



무역협회, 한-일 신산업무역회의 개최

(서울=연합뉴스) 한국무역협회가 29일 도쿄에서 한일경제협회, 일한경제협회와 공동으로 '제19회 한일 신산업무역회의'를 개최, 안종원 의장(왼쪽)과 아소 유타카 일본측 의장이 박수를 치고 있다
2018.3.29 [한국무역협회 제공=연합뉴스] photo@yna.co.kr



무역협회, 한-일 신산업무역회의 개최

(서울=연합뉴스) 29일 도쿄에서 한국무역협회가 한일경제협회, 일한경제협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제19회 한일 신산업무역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8.3.29 [한국무역협회 제공=연합뉴스] photo@yna.co.kr

무역協, 한일신산업무역회의 도쿄서 개최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영주)는 29일 한일경제협회, 일한경제협회와 공동으로 일본 도쿄 오쿠라 호텔에서 양국 경제인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9회 한일 신산업무역회의'를 개최했다.

오는 5월의 한일경제인회의에 앞서 열린 이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제50회 한일경제인회의를 다 함께 축하하고 경제·인재·문화교류를 통해 다음 50년을 창조해가자'는 슬로건 아래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구축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한국 측은 도레이첨단소재의 투자사례를 통해 본 한일 경제협력 확대방안과 에너지·환경·고령화·4차 산업혁명 협력 등 함께 꾸는 21세기 한일공을 제안했다. 일본 측은 양국 협력분야로 제3국 경제연계 확대, 한국청년의 일본계 기업인턴실습, 도쿄올림픽·한일축제한마당 협력 등을 제시했다.

한국측 체어맨인 안종원 의장은 "다음 세대에 물려줄 미래 50년의 한일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며 "논의된 방안들은 오는 5월 15~16일 일본에서 개최되는 제50회 한일 경제인회의에 상정해 공동성명으로 채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산업무역회의는 매년 5월 열리는 한일경제인회의의 산하 전문위원회로, 양국의 다양한 공통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무역협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의 도쿄서 개최... “미래 50년 설계” - 양국 경제협력 확대, 인적·문화적 교류 활성화 등 다양한 논의

[글로벌이코노믹 길소연 기자]

한국무역협회는 29일 한일경제협회, 일한경제협회와 공동으로 일본 도쿄 오쿠라 호텔에서 양국 경제인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9회 한일 신산업무역회의'를 개최했다.

이 날 회의에 참석한 경제인들은 '제50회 한일 경제인회의'를 다 함께 축하하고 경제·인재·문화 교류를 통해 다음 50년을 창조해 가자'는 슬로건 아래 미래 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구축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한국 측은 도레이첨단소재의 투자사례를 통해 본 한일 경제협력 확대방안과 에너지·환경·고령화·4차 산업혁명 협력 등 '함께 꾸는 21세기 한일몽(夢)'을 제안했다.

일본 측은 양국 협력 분야로 제3국 경제연계 확대, 한국청년의 일본계 기업인턴실습, 도쿄올림픽·한일축제한마당 협력 등을 제시했다.

한국 측 채어맨인 안종원 의장은 “다음 세대에 물려줄 미래 50년의 한일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며 “논의된 방안들은 오는 5월 15~16일 일본에서 개최되는 제50회 한일 경제인회의에 상정해 공동성명으로 채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산업무역회의는 매년 5월 열리는 한일경제인회의 산하 전문위원회로, 양국의 다양한 공통 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길소연 기자 ksy@g-enews.com

무역협회, '한일 신산업무역회의' 도쿄서 개최

【서울=뉴스시스】한주홍 기자 = 한국무역협회가 한일경제협회, 일한경제협회와 함께 일본 도쿄에서 '제19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행사에는 두 나라 경제인 90여명이 참석했다.

오는 5월 한일경제인회의에 앞서 열린 이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제50회 한일경제인회의'를 다 함께 축하하고 경제·인재·문화교류를 통해 다음 50년을 창조해가자'는 슬로건 아래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구축하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일경제협력의 미시적·거시적 관점', '다음 50년·차세대·관광교류' 등 두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한국측은 도레이첨단소재의 투자사례를 통해 본 한일경제협력 확대방안과 에너지·환경·고령화·4차 산업혁명 협력 등 '함께 꾸는 21세기 한일몽'을 제안했다. 일본 측은 두 나라 협력 분야로 제3국 경제연계 확대, 한국청년의 일본계 기업 인턴실습, 도쿄올림픽·한일축제한마당 협력 등을 제시했다.

한국 측 의장을 맡은 안종원 의장은 “다음 세대에 물려줄 미래 50년의 한일 경제 협력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며 “논의된 방안들은 오는 5월 열리는 한일경제인회의에 성장해 공동성명으로 채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산업무역회의는 매년 5월 열리는 한일경제인회의 산하 전문위원회로 두 나라의 다양한 공통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hong@newsis.com

무협, 한·일 신산업무역회의 개최
양국 경제협력 확대, 인적·문화적 교류 활성화 등 다양한 논의

이홍석 기자(redstone@dailian.co.kr)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영주)는 29일 일본 도쿄 오쿠라 호텔에서 양국 경제인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19회 한일 신산업무역회의'를 개최한다.

오는 5월의 한·일경제인회의에 앞서 열린 이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제 50회 한일경제인회의'를 다 함께 축하하고 경제·인재·문화교류를 통해 다음 50년을 창조해 가자'는 슬로건 아래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구축하자는 데 뜻을 모은다.

한일경제협회·일한경제협회와 공동으로 진행된 이 날 회의에서 한국 측은 도레이첨단소재의 투자 사례를 통해 본 한일 경제협력 확대방안과 에너지·환경·고령화·4차 산업혁명 협력 등 '함께 꾸는 21세기 한일몽'을 제안한다.

일본 측은 양국 협력분야로 제3국 경제연계 확대, 한국청년의 일본계 기업인턴실습, 도쿄올림픽·한일축제한마당 협력 등을 제시한다.

한국 측 চে어맨인 안종원 의장은 "다음 세대에 물려줄 미래 50년의 한일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며 "논의된 방안들은 오는 5월 15~16일 일본에서 개최되는 제50회 한일경제인회의에 상정해 공동성명으로 채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산업무역회의는 매년 5월 열리는 한일경제인회의 산하 전문위원회로 양국의 다양한 공통과제에 대해 논의한다.[데일리안 = 이홍석 기자]

무협, 도쿄서 한일신산업무역회의 개최...“다음 50년도 함께” 양국 경제협력 확대 및 인적·문화적 교류 활성화 등 논의

[미디어펜=나광호 기자]한국무역협회는 한일경제협회·일한경제협회와 공동으로 일본 도쿄 오쿠라 호텔에서 '제19회 한일 신산업무역회의'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신산업무역회의는 매년 5월 열리는 한일경제인회의 산하 전문위원회로, 이번 회의에 참석한 90여명의 양국 경제인들은 경제·인재·문화교류를 통해 다음 50년을 창조하자는 슬로건 아래 미래 지향적인 관계 구축에 뜻을 모았다.

한국 측은 △도레이첨단소재 투자사례를 통해 본 한일 경험 확대방안 △에너지 △환경 △고령화 △4차 산업혁명 협력 등 '함께 꾸는 21세기 한일몽'을 제안했다.

일본 측은 제3국 경제연계확대·한국청년의 일본계 기업 인턴실습·도쿄올림픽·한일축제한마당 협력 등을 제시했다.

한국 측 চে어맨인 안종원 의장은 "다음 세대에 물려줄 미래 50년의 한일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며 "논의된 방안들은 오는 5월 15~16일 일본에서 개최되는 제50회 한일경제인회의에 상정, 공동성명으로 채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

한일신산업무역회의 도코사... '미래 50년 설계'

[산업일보]

한국과 일본이 경제협력을 확대한다. 두 나라는 인적·문화적 교류 활성화 등 다양한 논의를 통해 한일 관계를 구축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국무역협회는 한일경제협회, 일한경제협회와 공동으로 일본 도쿄 오후라 호텔에서 양국 경제인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9회 한일 신산업무역회의'를 개최했다.

오는 5월 한일경제인회의에 앞서 열린 이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제50회 한일경제인회의'를 다 함께 축하하고 경제·인재·문화교류를 통해 다음 50년을 창조해가자'는 슬로건 아래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구축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한국 측은 도레이첨단소재의 투자사례를 통해 본 한일 경제협력 확대방안과 에너지·환경·고령화·4차 산업혁명 협력 등 '함께 꾸는 21세기 한일몽(夢)'을 제안했다. 일본 측은 양국 협력분야로 제3국 경제연계 확대, 한국청년의 일본계 기업인턴실습, 도쿄올림픽·한일축제한마당 협력 등을 제시했다.

한국 측 চে어맨인 안종원 의장은 "다음 세대에 물려줄 미래 50년의 한일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며 "논의된 방안들은 오는 5월 15~16일 일본에서 개최되는 제50회 한일 경제인회의에 상정해 공동성명으로 채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미 기자 ayk2876@kidd.co.kr

무역협회, 韓·日 신산업무역회의 도코사 개최 향후 50년 한일 경제협력 방안 집중 논의

한국무역협회는 29일 한일경제협회, 일한경제협회와 공동으로 일본 도쿄 오후라호텔에서 '제19회 한일 신산업무역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양국 경제인 90여명이 참석해 '제50회 한일경제인회의'를 함께 축하하고, '향후 50년을 창조해 가자'는 슬로건 아래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구축에 뜻을 모았다.

한국 측은 도레이첨단소재의 투자사례를 통해 본 한일 경제협력 확대방안과 에너지·환경·고령화·4차 산업혁명 협력 등 '함께 꾸는 21세기 한일몽(夢)'을 제안했다. 일본 측은 양국 협력분야로 제3국 경제연계 확대, 한국청년의 일본계 기업인턴실습, 도쿄올림픽·한일축제한마당 협력 등을 제시했다.

한국측 চে어맨인 안종원 의장은 "다음 세대에 물려줄 미래 50년의 한일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며 "논의된 방안들은 오는 5월 15~16일 일본에서 개최되는 제50회 한일 경제인회의에 상정해 공동성명으로 채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산업무역회의는 매년 5월 열리는 한일경제인회의 산하 전문위원회로, 양국의 다양한 공동과제를 논의한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ajunews.com

무협, 도쿄서 '한일신산업무역회의' 개최... “미래 지향적 한일관계 구축해야” 양국 경제협력 확대, 인적·문화적 교류 활성화 등 논의

[이뉴스투데이 유영준 기자] 한국무역협회가 29일 한일경제협회, 일한경제협회와 공동으로 일본 도쿄 오쿠라 호텔에서 양국 경제인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9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를 개최했다.

5월 한일경제인회의에 앞서 열린 이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제50회 한일경제인회의를 다 함께 축하하고 경제·인재·문화교류를 통해 다음 50년을 창조해 가자'는 슬로건 아래 미래 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구축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한국 측은 도레이첨단소재의 투자사례를 통해 본 한일 경제협력 확대방안과 에너지·환경·고령화·4차 산업혁명 협력 등 '함께 꾸는 21세기 한일몽(夢)'을 제안했다. 일본 측은 양국 협력분야로 제3국 경제연계 확대, 한국청년의 일본계 기업인턴십, 도쿄올림픽·한일축제한마당 협력 등을 제시했다.

한국 측 চে어맨인 안종원 의장은 “다음 세대에 물려줄 미래 50년의 한일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며 “논의된 방안들은 5월 15~16일 일본에서 개최되는 제50회 한일경제인 회의에 상정해 공동성명으로 채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산업무역회의는 매년 5월 열리는 한일경제인회의 산하 전문위원회로 양국의 다양한 공통 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유영준 기자 junhyeokyu@enewstoday.co.kr

무협, '미래 50년 설계' 한일 신산업무역회의 도쿄서 개최 양국 경제협력 확대, 인적·문화적 교류 활성화 논의

한국과 일본 무역업체가 양국의 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무역협회는 29일 한일경제협회, 일한경제협회와 공동으로 일본 도쿄 오쿠라 호텔에서 양국 경제인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9회 한일 신산업무역회의'를 개최했다.

오는 5월의 한일경제인회의에 앞서 열린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제50회 한일경제인회의를 다 함께 축하하고 경제·인재·문화교류를 통해 다음 50년을 창조해 가자'는 슬로건 아래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구축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한국 측은 도레이첨단소재의 투자사례를 통해 본 한일 경제협력 확대방안과 에너지·환경·고령화·4차 산업혁명 협력 등 '함께 꾸는 21세기 한일몽'을 제안했다.

일본 측은 양국 협력분야로 제3국 경제연계 확대, 한국청년의 일본계 기업인턴십, 도쿄올림픽·한일축제한마당 협력 등을 제시했다.

한국 측 চে어맨인 안종원 의장은 “다음 세대에 물려줄 미래 50년의 한일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며 “논의된 방안들은 오는 5월 15~16일 일본에서 개최되는 제50회 한일 경제인회의에 상정해 공동성명으로 채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산업무역회의는 매년 5월 열리는 한일경제인회의 산하 전문위원회로, 양국의 다양한 공통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무역협회, '한일 신산업무역회의' 도코서 개최

한국무역협회가 한일경제협회, 일한경제협회와 함께 일본 도쿄에서 '제19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행사에는 두 나라 거제인 90여명이 참석했다.

오는 5월 한일경제인회의에 앞서 열린 이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제50회 한일경제인회의를 다 함께 축하하고 경제·인재·문화교류를 통해 다음 50년을 창조해가자'는 슬로건 아래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구축하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일경제협력의 미시적·거시적 관점', '다음 50년·차세대·관광교류' 등 두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한국 측은 도레이첨단소재의 투자 사례를 통해 본 한일경제협력 확대방안과 에너지·환경·고령화·4차 산업혁명 협력 등 '함께 꾸는 21세기 한일몽'을 제안했다. 일본 측은 두 나라 협력 분야로 제3국 경제연계 확대, 한국청년의 일본계 기업 인턴실습, 도쿄올림픽·한일축제한마당 협력 등을 제시했다.

한국 측 의장을 맡은 안종원 의장은 "다음 세대에 물려줄 미래 50년의 한일 경제 협력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며 "논의된 방안들은 오는 5월 열리는 한일경제인회의에 성장해 공동성명으로 채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산업무역회의는 매년 5월 열리는 한일경제인회의의 산하 전문위원회로 두 나라의 다양한 공통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서울=뉴시스

한국무역신문 wtrade07@gmail.com

첨부 4 제19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의 전경



<한일신산업무역회의의 양국 체어맨>



<한일신산업무역회의의 양국 대표>



<본회의 전경①>



<본회의 전경②>



<본회의 전경③>



<Reception 전경①>



<Reception 전경②>



<Reception 전경③>



<Reception 전경④>



<개회인사하는 안종원 한국측 চে어맨>



<개회인사하는 아소 일본측 চে어맨>



<제1세션 : 전해상 도레이첨단소재 사장>



<제1세션 : 후지요시 SJC 이사장>



<제2세션 : 신각수 前 주일한국대사>



<제2세션 : 다나카 하쿠호도 도쿄2020 추진부장>



<질의응답① : 기병태 히카리정보 회장>



<질의응답② : 김정수 대한항공 일본지역본부장>



<질의응답③> : 박귀현 KITA 도쿄지부장>



<질의응답④> : 박남숙 교세이국제특허정보 대표>



<질의응답⑤> : 권홍봉 진로 대표>



<질의응답⑥> : 조은호 KOTRA 일본지역본부장>



<질의에 답하는 전해상 도레이첨단소재 사장>



<총괄발언하는 서석승 한일경제협회 부회장>